

<별첨 1>

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 정 진 옥

(한문) : 鄭 鎭 旭

2. 생 년 월 일 : 1960년 2월 17일

3. 현 직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 학 력 :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1978-1983)
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1983-1985)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Florida, 1986-1990)



5. 주요경력 및 연구업적(5개항 이내) :

- 경 력 : ① Emory University 조교수 (1991-1994)
② 아주대학교 부교수, 교수 (1994-2002)
③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위원 (2009)
④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2013)
⑤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8)

연구업적 :

- ① "Measurement Errors and Tests for Rationality,"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9, pp.431-439. (1991) (with G.S. Maddala)
- ② "On the Exact Small Sample Distribution of the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or," *Econometrica* 60, pp.181-183. (1992) (with G.S. Maddala)
- ③ "Testing the Rationality of Survey Data Using the Weighted Double-Bootstrapped Method of Mome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 pp.296-302. (1996) (with G.S. Maddala)
- ④ "Effects of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34, pp.203-215 (2016) (with Y.J. Choi)
- ⑤ "On the Efficiency of Racetrack Betting Market: A New Test for the Favorite-Longshot Bias," *Applied Economics* 51, pp.5817-5828 (2019) (with J.Y. Kim and Y.J. Ro)

자기 소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70년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을 대표해 온 한국경제학회의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떨리는 마음입니다. 선생님께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경제학자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리 잘 하지도 못했지만, 그저 논문 쓰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저의 초기 연구들은 제가 유학 생활 중 만나 그 통찰력과 인품에 깊이 매료되었던 G.S. Maddala 교수와의 공동 작업이 많았습니다. 이 때의 연구 주제는 표본선택 (sample selection), 도구변수 (IV) 추정, 부트스트랩 (bootstrap method) 등이었습니다. 그 시기 이후에도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소표본 검정력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계속하였으나, 제 연구의 방향은 차츰 산업조직 분야의 실증분석, 의료경제학 분야의 실증분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1년에 한두 편씩 논문을 내다 보니, 어느새 50여편의 부끄러운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점점 연구능력은 떨어져 가지만, 은퇴할 때까지 계속 논문을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생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사 마친 후 Emory University 에서 몇 년 미국 학생들을 가르쳤고, 귀국하여 우리나라 학생들과 지내면서도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에서 1년 간 싱가포르 학생들을 가르치고, 東京大學에서 일본 학생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는 많이 배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지난 30년 동안 얻은 한 가지 큰 깨달음은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대화와 마음의 나눔을 병행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선생의 자리가 끝나는 날까지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사회봉사는 교육만큼 다양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신협중앙회 전문이사,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산업조직학회 이사 등을 맡았었습니다. 여러 자리만 어지럽히고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듯 하여, 만일 이번에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있는 힘을 다해 1년 동안 한국경제학회 일로 봉사하려는 각오를 다집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조언, 깨우침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 약 사 항

1. 교류와 소통 및 토론 방식의 개선

한국경제학회의 가장 큰 임무는 회원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의 경로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올해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교류와 소통 및 토론의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역시 이런 변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혁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는 현재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토론’을 더 확대하여 운영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회원들끼리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 지회의 적극적 지원

현재 운영 중인 영남, 충청, 호남 지회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각 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본회에서 주관하는 정책 포럼의 일부를 지회에서 개최하거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본회가 개최하는 방식으로 본회와 지회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활동 중인 3개 지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 연구지원사업 시행

한국경제학회의 임무 중 하나는 회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에 회원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연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인 연구과제들을 선정하고, 둘째, 이 과제들에 대하여 해외 경제학회와 교류하고 다양한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저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학회의 중추적인 임무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학 교육 지원

경제학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학회도 경제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지원에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남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매우 높은데도,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으로 경제학을 선택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경제 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의 수가 적고, 교과 내용이 경제학의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엽적인 지식의 암기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년에는 우선 경제교육 영상강의를 제작하여 중고등학교에 제공하고, 질의응답 사이트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